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동현

전화 051-606-4164

보도자료
2026. 4. 14.(화)

제 목

「항공사 기장 살인 등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금일(4. 14.)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같은 항공사에 재직한 동료 기장 6명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김동환(49세, 前 항공사 부기장)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피고인은 항공사 재직 및 퇴사 등 과정에서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의 조직적 음해와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5. 8.경부터 약 7개월 간 범행도구 구입, 피해자 미행, 주거지 답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단기간 내에 연쇄 살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동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송치 후에도 추가 압수수색, 임상 심리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범행 동기와 계획, 그 실행을 위한 예비행위까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 김동환(남, 49세, 무직, 前 △△항공사 부기장)

※ '26. 3. 24. 경찰, 신상정보 공개결정

② 공소사실 요지

죄명	피해자	공소사실 요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	'26. 3. 1.~3. 17.경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의 운항정보 사이트에 권한없이 수회 침입 하여 살인 등 피해자들의 운항정보 확인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A	'26. 3. 16. 04:00경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 하여 침입한 후 출근하는 피해자를 살해 하려다 미수
주거침입 및 살인	B	'26. 3. 17. 04:50경 부산 소재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 하여 침입한 후 외출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
각 살인예비	C·D·E·F	'25. 8.~'26. 3.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 미행 및 주거지 답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살인 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II 주요 수사 경과

- '26. 3. 16. 경기 고양시에서 피해자 A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발생
※ 피고인은 A에 대한 범행 직후 부산으로 도주
- '26. 3. 17. 부산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사건 발생 / 긴급체포(경찰)
- '26. 3. 20. 부산지방법원, 피고인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 '26. 3. 24. 부산진경찰서, 신상정보 공개
- '26. 3. 26. 부산진경찰서, 사건 송치
- '26. 3. 26. ~ 부산지방검찰청, 보완수사 / '26. 4. 14. 구속기소
※ 압수수색, 계좌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답사, 범행도구 구입 등 살인예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임상심리분석 등 통해 심층적 동기 확인

III

수사 결과

① 사건의 중대성

- 이 사건은 정보장교 출신인 피고인이 수개월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연쇄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결과 1명이 사망하였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임

②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연쇄 살해할 목적 확인

-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및 공군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모욕적인 말로 건강 이상을 유발하여 퇴사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파일럿 인생을 파멸시켰다'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음
- 특히 피고인은 퇴사 당시 피해자 A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에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액수를 두고 공제회와 소송을 벌인 끝에 '25. 7.경 일부 패소하여 신청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인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하고, 만약 그중 범행이 어려운 대상이 생기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할 계획이었음

③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 피고인은 '25. 8.경부터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행 또는 피해자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지를 알아낸 후, 수회 답사하여 피해자들의 주변 환경 및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범행시간·장소·방법, 도주 경로를 계획하는 등 7개월 이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범행 준비 및 실행 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배송기사로 위장하여 현장에 침입하여 범행 후에 환복하고 대중교통을 수회 갈아타며 도주하기도 하였음

4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초동수사

-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받고,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경찰은 피고인을 신속히 검거하여 추가적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단기간 밀도 있는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상당 부분 밝혀내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예비 등 여죄 혐의를 인지하였음

5 검찰의 보완수사 및 피해자 지원

-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증거와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 또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 기간 동안 압수수색, 계좌추적, 데이터 통신 분석, 임상심리분석, 관련자 조사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심층적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
 - ※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25. 10.중순경 수일간 전국의 범행장소를 돌며 연쇄살인계획 전체를 점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범행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
-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구조금, 장례비 등),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IV 향후 계획

-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 나아가,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음☑